한국학연구 제62집 | 163~190쪽 | 2021.8.

1900~1940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와 서양인들의 한국 연구*

이영미**

〈차 례〉

1. 머리말
2. '선교사 겸 학자'들과 한국지부
3. 트롤로프와 영국국교회 선교사들의 참여
4. 전문 연구자로서의 선교사 2세들
5. 맺음말

[국문초록]

1900년 6월 16일 서양인 17명이 서울 유니언(Seoul Union) 독서실에 모여서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이하 '한국지부'로 줄임)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부는 1824년 왕의 칙허를 받은 영국 학회의 지부를 표방하였으나 런던보다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의지로 설립되었고, 다른 지부들과 마찬가지로 본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으면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이하 '『회보』'로 줄임)를 간행하였다. 이 단체는 창립 초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1910년대 초 자리를 잡았으며, 태평양 전쟁으로 일제가 미국인 선교사들을 강제 귀국시킬 때까지 약 30년간 국내외 서양인들에 의한 한국 연구의 본진으로 기능하였다. 1947년 12월 18일 소수의 영미권 인사들에 의하여 재조직되어 작년에 창립 120주년을 맞았다.

이 논문은 1940~1940년 한국지부의 초기 역사를 1900~1916년, 1917~1928년, 1929~1940년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다룬 결과 다음과 같은 고찰을 얻었다. 첫째,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이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게일은 존스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헐버트가 한국을 떠난 후 한국지부의 정착에 기여하였다. 둘째, 한국 연구에 진정한 열정을 가진 영국국교회 선교사들이 있었다. 트롤로프(Mark N. Trollope, 1862~1930)는 존스, 헐버트, 게일과 마찬가지로 '선교사 겸 학자'였던 랜디스(Eli B. Landis, 1865~1898)의 영향으로 한국지부 초창기에 『회보』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1917년 이래 거의 매년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출되는 한편 동료 선교사들이 한국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셋째, 1920년대 말부터 미국 선교사 2세들이 한국지부를 이끌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노블(Harod J. Noble, 1903~1953)과 맥큔(George M. McCune, 1908~1948)은 한국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학계에 진입하였다. 비슷한 시기 천주교 선교사 에카르트(Andreas Eckardt, 1883~1974) 역시 한국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한국학의 개척자가 되었다.

[주제어]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 존스, 헐버트, 게일, 트롤로프, 랜디스, 노블, 맥큔, 에카르트

1. 머리말

1900년 6월 16일 서양인 17명이 서울 유니언(Seoul Union) 독서실에 모여서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이하 '한국지부'로 줄임)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부는 1824년 왕의 칙허를 받은 영국 학회의 지부를 표방하였으나 런던보다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의지로 설립되었고, 다른 지부들과 마찬가지로 본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으면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이하 '『회보』'로 줄임)를 간행하였다.[1] 이 단체는 창립 초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1910년대 초 자리를 잡았으며, 태평양 전쟁으로 일제가 미국인 선교사들을 강제 귀국시킬 때까지 약 30년간 국내외 서양인들에 의한 한국 연구의 본진으로 기능하였다. 1947년 12월 18일 소수의 영미권 인사들에 의하여 재조직되어 작년에 창립 120주년을 맞았다.[2]

1) 왕립아시아학회 지부들은 본부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 아니라 본부와 제휴하고 이름을 지부로 바꾼 기성 학회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본부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지부는 처음부터 지부로서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부들과 다르지만, 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면에서 다른 지부들과 같다.

한국지부에 대한 우리 학계 최초의 글은 『회보』 1972년호에 발표된 백낙준의 「한국지부 70년」이지만, 이 단체와 『회보』가 실제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였다고 판단된다. 먼저는 류대영(2002)이다. 그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 관련 연구 성과에 관한 논문에서 『회보』에 게재된 그들의 글을 대거 소개하였고, 한국지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보』를 "근대 최초의 한국학 전문지"로 평가하였다.[3] 다음은 유영익(2005)이다. 그는 서양인들이 한국의 근대 역사 서술에 끼친 영향을 살핀 논문에서 『회보』가 한국학의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높이 샀으며,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있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논의"가 한국지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도 설명하였다.[4]

2015년대 중엽 한국지부와 『회보』를 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김수진(2015)은 한국지부의 창립과 활동을 검토하는 한편 『회보』에 실린 글들에서 서양인들의 한국 인식을 추출하였고,[5] 이고은(2017)은 『회보』 1900~1924년호를 중심으로 저자들의 관점과 자료적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6]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업적은 이상훈 외 6명의 공저(2019)이다.[7] 이는 2014년부터 수년간 진행된 학제간 협동 연구의 결과물로, 『회보』 1900~1950년호에 실린 글들을 종교, 예술, 어문,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등 분야별로 나누어 정치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한국지부와 『회보』의 위상을 확립하고 『회보』에 실린 글

---

2) H. H. Underwood,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ts Past and Presen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31, Seoul, Korea :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48-9, p. 2.

3) 류대영, 「연희전문, 세브란스의전 관련 선교사들의 한국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9쪽.

4) Young Ick Lew, "Contributions by Western Scholars to Modern Historiography in Korea, with Emphasis on the RAS-KB,"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80, Seoul, Korea :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2005, p. 10.

5) 김수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회지 『Transaction』을 통해 본 서양인의 한국 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 1900-1924년을 중심으로」, 『한국학』 4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7) 이상훈 외 지음,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전2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회보』에 실린 글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결과 몇 가지 부족한 부분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우선 한국지부 자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지부가 초기에 10년 가까이 학술지 간행을 중단한 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아직 없고, 세계 최초의 한국학 학술 단체로서 한국지부를 세우고 유지한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지부 첫 40년간의 역사에서 발전과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1900~1903년을 창립기, 1903~1911년을 휴지기, 1911~1931년을 재활동기, 1931~1941년을 억압기로 구분한 시도가 있으나,[8] 너무 단순하고 불균형적인 데다 한국지부 내부의 변동 사항이나 서양인들에 의한 한국 연구의 발전 양상을 드러내기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본 논문은 창립부터 1940년호 간행까지 약 40년에 걸친 한국지부의 초기 역사에 관한 고찰이다. 한국지부의 역사를 1900~1916년, 1917~1928년, 1929~1940년의 3개 시기로 구분하겠지만, 본론은 각 시기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지부의 창립과 안착에 기여한 '선교사 겸 학자(missionary-scholar)'들, 미국 개신교도들이 대부분이던 한국지부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영국국교회 선교사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 받고 한국 연구에 합류한 선교사 2세들이 그들이다.

2. '선교사 겸 학자'들과 한국지부

한국지부 창립총회를 주재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인물은 주한영국공사대리 거빈스(John H. Gubbins, 1852~1929)였으나, 창립을 기획 및 준비

8) 김수진, 같은 글, 3쪽.

하고 초창기 학술 활동에 앞장선 것은 북감리교 선교사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 관립한성사범학교 교관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북장로교 선교사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경로로 내한하였고 자라난 환경도 상이하였지만 재한서양인 규모가 많지 않던 1880년대에 내한하여 일찍부터 친분을 쌓았으며, 무엇보다도 북감리교 한국선교부가 창간한 영문 월간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로 줄임)를 통하여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킨 한국 최초의 '선교사 겸 학자'들이었다.[9]

한국지부 창립 과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사건은 1899년 10월 18일 존스가 런던에 한국지부 창립을 문의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리포지터리』가 발행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한국 연구의 결과물을 실을 지면이 없어지자, 정식 학술 단체를 만들고 학술지를 간행함으로써 한국 연구의 환경과 수준을 제고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그가 이 일을 혼자 추진한 것은 아니다. 그는 북감리교 소속이었고 『리포지터리』 편집자였기 때문에 우선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학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연구에 열심이었던 헐버트와 게일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다행히도 모두 협조적이었던 것 같다. 창립총회 참석자 17명 중 6명(존스 제외)이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것, 창립총회 당일 게일이 회의록을 기록하고 헐버트가 학회 헌법 및 내규 초안을 제출한 것, 임원단 선거에서 존스가 부회장, 헐버트(기록 담당)와 게일(교신 담당)이 서기로 선출된 것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다.[10]

한국지부는 순조롭게 창립되었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연구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창립 4개월 후 열린 첫 번째 연구발표회에서 회장 거빈스가 "논문의 부족으로 모임과 모임 사이의 공백이 길더라도 낙담하지 말 것"을 부탁한 데서 잘 드러난다.[11]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언어,

---

9) 이영미,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1.

10) "Minutes of General Meetings,"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1 Part 1,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00, pp. 71~72.

11) 위의 글, p. 73.

문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장시간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발표할 만한 의욕과 역량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였다. 따라서 초기 한국지부의 학술 활동은 존스, 헐버트, 게일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 그들은 연구발표회에서 발표와 논평을 도맡았을 뿐 아니라 1901년부터 1903년까지 네 차례 간행된『회보』에서 9편 중 7편을 집필하였다. 다시 말하면 1900년대 초 서양인들에 의한 한국 연구의 현주소는 연구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었고, 이는 한국지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한계였다.

이 문제는 1903년부터 악화되었다. 존스가 안식년을 얻어 귀국하고 헐버트와 게일이 6개월간 휴가를 다녀오는 등, 그나마 있던 연구자 3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 것이다. 존스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로 귀국하였다가 3년 만에 복귀하였으며, 복귀한 후에는 북감리교 한국 선교부의 고참으로서 신학교 설립과 신학 저술 활동에 힘쓰다 1909년 여름 영구 귀국하였다. 헐버트는 을사조약 체결 직전 고종의 밀사로 변신하였다. 그는 1905년 10월 고종의 지시로 미국에 갔다가 이듬해 5월 돌아왔으며, 1907년 5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헤이그로 떠날 때 모든 한국 생활을 정리하였다.[12] 게일은 1906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낸 것 외에는 계속 한국에 있었지만, 1908년 봄부터 아내와 양친 등을 줄줄이 잃으며 1년 이상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13] 세 사람의 부재 내지 참여 부진은 한국지부의 학술 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1902년 이후에도 운영 회의는 가끔 열렸으나 한국을 주제로 한 논문은 나오지 않았다.”[14] 1907년 5월 8일을 끝으로 모든 모임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 결과였다.

한국지부는 1911년 1월 23일 전직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William B.

---

12) 한철호,「헐버트의 만국평화회의 활동과 한미관계」,『한국독립운동사연구』2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6쪽.

13) 이상현,『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14쪽.

14) “Minutes of Important Meetings,”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4 Part 2,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13, p. 75.

Scranton, 1856~1922)의 병원에서 회의를 열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1903년 호 회원 목록에 이름이 실려 있던 4명과 그렇지 않은 5명이 참석하였는데, 그들 중 7명은 북감리교, 북장로교, 기독교청년회, 영국국교회 등 다양한 교단의 전현직 선교사들이었다.[15] 이는 영미권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지부의 창립 뿐 아니라 존속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게일이었다. 1910년 재혼으로 정서적 안정을 회복한 그는 이 날 창립총회 때 그랬던 것처럼 교신 서기로 선출되었고, 9개월 후에는 제물포주재영국영사 레이(Arthur H. Lay, 1865~1934)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이 때부터 5년간 회장직을 맡아 한국지부가 안착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1916~1923년 교신 서기, 1923~1927년 부회장으로 활동한 후 은퇴하여 1937년 영국에서 여생을 마쳤다.

한국지부는 수년간 중단되었던 『회보』를 다시 간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선교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연구를 부탁하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부탁 받은 사람들이 모두 글을 완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는 글을 완성하여 연구발표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12~1913년 세 차례 『회보』가 간행되었고 다음과 같이 총 8편의 글이 실렸다.

[표1] 1912~1913년 『회보』에 수록된 논문 목록

권호수	제목	저자	직업/직위
4-1	옛 사람들과 새 정부	코마츠 미도리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한국의 글자	게일	북장로교 선교사
4-2	16세기 일본의 한국 침공 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	야마가타 이소오	『서울 프레스』 편집인
	옛 한국의 마을 조합들	질레트	기독교청년회 선교사
	옛 한국의 화폐 제도	이치하라 모리히로	한국은행 총재

15) 스크랜튼, 벙커(Dalzell A. Bunker, 1853~1932), 앨버트슨(Millie M. Albertson, 1870~1918)(북감리교), 게일(북장로교), 질레트(Philip L. Gillett, 1874~1939)와 브로크먼(Frank M. Brockman, 1878~1929)(기독교청년회), 그리고 뱃콕(John S. Badcock, 1869~1942)(영국국교회)이 그들이다. 스크랜튼, 벙커, 게일은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곧바로 회원이 되었으며, 뱃콕은 1903년호 발간 이후 회원이 되었으나 영국국교회 한국선교부를 대표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4-3	한국의 결혼 풍습	레이	제물포주재영국영사
	사주와 이혼	게일	북장로교 선교사
	조선 태조의 평면천문도	루퍼스	북감리교 선교사

위 논문 목록은 게일이 『회보』를 꾸리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지부의 부탁에 따라 50여 쪽에 달하는 「한국의 글자」를 썼고, 레이의 「한국의 결혼 풍습」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6쪽 분량의 「사주와 이혼」을 썼다. 존스와 헐버트가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학술지를 만들자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지부의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였다. 회계 질레트는 논문이라기보다는 발췌본에 가깝지만 「옛 한국의 마을 조합들」을 썼으며,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은 레이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글을 한 편 쓰라는 게일의 권유에 응하였다.[16]

특이점은 짧은 기간 동안 일본인이 3명이나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코마츠 미도리(小松綠, 1865~1942)와 『서울 프레스』 편집인 야마가타 이소오(山縣五十雄, 1869~1959)는 당시 회장이었던 레이의 권유에 의하여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17] 이치하라 모리히로(市原盛宏, 1858~1915) 또한 한국지부의 부탁을 받아 「옛 한국의 화폐 제도」를 썼는데,[18] 그는 스크랜튼과 예일대 동문인데다 개신교 신자여서 선교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이 세 사람을 제외하면 연구발표회에서 글을 발표하거나 『회보』에 기고한 일본인은 없다. 한국지부에서 일본인 회원은 언제나 극소수였고 그들 중 회의에 참석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된 인물은 거의 없었다.[19] 창립 후 1940년

16) 레이는 곧 한국을 떠나 새로운 임지로 갈 상황이었다. 회장을 그만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는 하와이주재영국영사와 시모노세키주재영국영사를 거쳐 1914년부터 1927년까지 서울주재영국총영사로 복무하였으며, 1916년 2월 게일이 사임하자 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17) "Minutes of the Council,"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4 Part 2,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13, p. 76.

18) "Minutes of a Meeting of the Council,"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4 Part 2,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13, p. 82.

19) 1902년 한국지부 회원 74명 중 일본인은 당시 관립중학교 교사였던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 외 3명이었다. 이후 일본인 회원의 규모는 3~5명을 유지하다 조금씩 줄어들었으며,

까지 한국지부의 중추를 이룬 사람들은 대체로 영어권 국가 출신이었다. 비영어권 출신 회원들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영어 사용에 능숙해야 했으므로 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지부로부터 연구를 부탁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교사였다. 임원들이 거의 다 선교사여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선교사들이 야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할 만큼 한국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07년 내한하여 숭실대학과 연희전문학교에서 가르쳤던 북감리교 선교사 루퍼스(W. Carl Rufus, 1876~1946)이다. 그는 미시건대학에서 천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로 게일의 권유에 따라 「조선 태조의 평면 천문도」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天象列次分野之圖〉(1395)에 수록된 천문학적 지식을 영문화하여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연구 성과였다. 10년간의 선교 활동 후 미시건대학 천문학과 교수가 된 그는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 이원철(李源喆, 1896~1963)을 배출하였으며, 1935년에는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원철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의 천문학」을 기고하기도 했다.[20]

모든 선교사들이 루퍼스처럼 박사 학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데다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최초의 '선교사 겸 학자'들처럼 많은 글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약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1939년에는 전체 회원 211명 중 서울의 일본인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1명과 시데하라뿐이었다. 오래는 아니지만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전술한 야마가타와 히시다 세이지(菱田静治, 1874~미상) 정도이다.

20) 루퍼스의 생애와 한국 천문학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로는 나일성, 「알비온(Albion)에서 온 두 과학자 : 베커와 루퍼스의 교육과 사상」, 『동방학지』 46-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편, 손영종·구만옥·김도형 역주, 『루퍼스의 한국 천문학』, 선인, 2017; 전용훈, 「서양 성도(星圖)를 통해 본 조선 시대 천문도의 특징」,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표2] 1911년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회보』참여(게일 제외)

교단/단체	이름	저술 제목(연도)	내한연도	비고
북장로교	쿤스	한국의 삼림 조성(1915)	1903	명신학교 경신학교
		옛 한국의 봉수제(1925)		
	언더우드	한국의 사냥과 사냥꾼 설화(1915)	1912	경신학교 연희전문
		서양의 한국 관련 문헌(1931)		
		한국의 선박(1934)		
	밀스	한반도 북부 동래강 유역의 생태계 연구(1921)	1908	세브란스의전
	러들로	고려 왕조의 도자기(1923)	1912	세브란스의전
	부츠	한국의 무기와 갑옷(1934)	1921	세브란스의전
	부츠 부인	한국의 악기와 음악(1940)		이화여전
북감리교	루퍼스	조선 태조의 평면 천문도(1913)	1907	숭실대학 연희전문
		한국의 천문학(1936)		
	밴버스커크	한국의 기후가 인간의 능률에 끼치는 효과(1919)	1908	세브란스의전
		한국인들의 먹거리(1923)		
	케이블	옛 한국의 범종(1925)	1899	연희전문 협성신학교
		1866~1871년 미국과 한국의 관계(1938)		
남장로교	커밍	한국의 새들에 관한 소고(1933)	1918	영흥학교 외 4개 학교
남감리교	보먼	한국 의약의 역사(1915)	1911	세브란스의전
영국성서공회	밀러	한국의 어떤 왕실 장례식(1927)	1899	성서 보급

위 목록은『회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들은 1870~1880년대에 태어나 20세기 초, 아무리 이른 경우에도 19세기의 끝자락에 내한한 젊은 층이었고, 내한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는 모두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부분이 평신도였다. 목사는 케이블(Elmer M. Cable, 1874~1949)과 커밍(Daniel J. Cumming, 1892~1971)뿐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일반적인 목사 선교사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케이블은 코넬대학 졸업 후 집사 목사 안수를 받고 배재학당 교사로 내한하였으며, 커밍은 신학교를 졸업하여 모든 자격을 갖춘 목사였으나 줄곧 교육 분야에서 일하였다.

20세기 전반 한국 연구를 실시한 선교사들이 목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1890년대에 한국 연구를 시작한 최초의 '선교사 겸 학자' 4인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지부 창립을 주도한 존스, 헐버트, 게일, 그리고 1898년 봄에 사망한 영국국교회 선교사 랜디스(Eli B. Landis, 1865~1898)가 그들이다. 네 사람은 교단, 국적, 출생 및 성장 과정에서는 그다지 공통점이 없었지만 모두 평신도였다.[21]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신도 선교사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온 동료들에 비하여 한국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들이 목사들보다 덜 바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연구를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교육 활동과 의료 선교, 성서 번역 등으로 바쁜 중에도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공부하였으며, 존스와 게일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에 깊이 관여하게 된 후에도 한국 연구를 그만두지 않았다.

1911년 이후 『회보』에 연구 성과를 낸 선교사들이 1890년대에 등장한 '선교사 겸 학자' 4인과 일정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선교사 겸 학자'로 명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선교사 겸 학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면에서 유의미한데 즉, 전문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천문학 박사였던 루퍼스가 한국의 천문학을, 음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전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부츠 부인(Florence S. Boots, 1894~1976)이 한국의 악기와 음악을 연구하는 등, 한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해당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14년 세브란스의전 연구부를 세운 밀스(Ralph G. Mills, 1884~1944)와 밴버스커크(James D. VanBuskirk, 1881~1969)는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생태와 기후를 연구하였으며, 부츠(John L. Boots, 1894~1983)와 커밍(Daniel J. Cumming, 1892~1971)은 각각 치의학과 교수와 학교 교장이었지만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무기와 갑옷」과 「한국의 새들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였다. 한편 케이블이 은퇴를 몇 년

21) 존스는 내한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매우 드물게도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게일은 토론토대학(문학사), 랜디스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의학박사)을 졸업하였다. 헐버트는 유명한 회중교회 성직자 집안의 아들로서 다트머스대학과 유니언신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육영공원 교사로서 내한하였다.

앞두고 쓴 「1866~1871년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230쪽에 달하는 논문이자 자료집으로서 지금도 해당 시기를 다루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쓰이고 있다. 이렇듯 연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꼭 연구자의 역량 때문이라기보다는 19세기 말보다 연구 기반 및 환경이 개선된 덕분이었으며, '선교사 겸 학자' 4인을 비롯하여 선배 선교사들이 발표한 초보적인 연구 성과들은 그들의 공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지부는 1900년 6월 존스, 헐버트, 게일 즉, '선교사 겸 학자'들의 주도로 세워졌으나, 초기 3년 이후로는 그들의 참여 저조와 다른 연구 인력의 부재 때문에 수년간 침체기를 지내다가 1911년 학술 활동을 재개하였다. 존스와 헐버트는 1909년과 1907년 각각 귀국하여 한국지부 명예 회원으로만 있었다면, 게일은 한국에 남아 한국지부가 다시 학술 단체로 기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창립에서 안착에 이르는 1900년부터 1916년까지를 한국지부 역사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자 한다.

3. 트롤로프와 영국국교회 선교사들의 참여

1900~1940년 한국지부의 학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 교단 소속이었다.[22] '선교사 겸 학자' 3인의 경우 존스는 북감리교, 게일은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헐버트는 1890년대 중엽 약 4년간 북감리교 선교부에 몸담았으며, 이후 회원, 임원, 필진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미국 교단 소속이 많았다. 물론 한국지부가 미국 교단 선교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교단으로는 빅토리아장로교(호주)와 캐나다장로교, 단체로는 기독교청년회와 영국성서공회, 구세군 등의 선교사들이 회원과 임

22) 한국지부 창립 당시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교단은 북장로교, 북감리교, 남장로교, 남감리교이다. 북침례교는 교단이 아니라 단체(엘라씽기념선교회) 차원에서 1895년 소규모 선교를 개시하였으며, 캐나다 선교사 펜윅(Malcolm C. Fenwick, 1863~1935)에게 선교 성과를 이양하고 1901년 4월 철수하였다.

원으로서 한국지부를 지원하였던 것이다.[23] 그러나 미국 교단 선교사들을 제외하고 한국지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영국국교회 선교사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 겸 학자' 4인 중 나머지 한 명인 랜디스는 영국국교회 소속이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재세례파 공동체에서 태어났으나 대학 시절 영국인 사제를 만나 개종하였으며, 1890년 내한하여 의료 선교에 힘쓰던 중 한국 연구에 눈을 떠 많은 연구 성과를 생산하였다. 중국, 인도, 영국 등지에서 발행되던 전문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감리교 선교사들이 만든 『리포지터리』에도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실었다. 당시 한국에서 영국국교회 선교사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떤 일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24] 그가 『리포지터리』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 놀라운 일은 1898년 봄 랜디스가 병사한 후 트롤로프(Mark N. Trollope, 1862~1930)가 그의 뒤를 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과 커데스던신학교를 졸업한 사제로서 랜디스보다 조금 늦게 내한하였고, 랜디스 사후 고인을 추모하는 글과 「한국과 만주 셩징(盛京)의 영국국교회」를 『리포지터리』에 실음으로써 재한서양인들의 저술 세계에 데뷔하였다. 또한 한국지부가 만들어지자 단순히 회원이나 임원이 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회보』에 게재하는 데 이르렀다. 1901년부터 1903년까지 『회보』에 수록된 9편의 글 중 7편이 존스, 헐버트, 게일에 의하여 집필되었는데, 나머지 2편 중 하나가 그의 글 「강화도」였던 것이다.[25] 이 글은 수차례의 현지 방문과 영문 및 한문 문헌 자료 연구에 힘입어 강화도를 전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술이며,[26] 같은 시기 존스, 헐버트, 게일의 글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23) 미국 교단 소속이 아니면서 한국지부 임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는 기독교청년회의 질레트와 브로크먼, 영국성서공회의 켄뮤어(Alexander Kenmure, 1858~1910)와 밀러(Hugh Miller, 1872~1957), 구세군의 홉스(Thomas Hobbs, 1880~미상)와 본윅(Gerald W. Bonwick, 1872~1984), 그리고 빅토리아장로교의 맥라렌 부인(Jessie McLaren, 1883~1968) 등이 있다.

24) 영국국교회는 가톨릭 전통을 많이 따르지만 개신교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영국국교회를 제외한 장로교, 감리교 등을 개신교로 칭한다.

25) M. N. Trollope, "Kang-Wha,"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2 Part 1, Seoul, Korea :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02, pp. 1~36.

26) 트롤로프가 강화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섬이 영국국교회 한국선교부의 주요

없다. 그는 이렇게 연구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이 글 이후 한동안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02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가 꽤 오래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롤로프 외에도 몇몇 인물들이 한국지부에 관심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뱃콕은 한국에 갓 도착한 상태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고, 1911년 1월 활동을 재개할 때도 회의에 참석하여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허지스(Cecil H. N. Hodges, 1880~1926)가 『회보』 1914년호에 「한국의 신화 및 민속 조사를 위한 간청」을 기고하였다. 제목 그대로 한국의 신화 및 민속 조사를 한국지부에 요청하는 이 글에서,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및 서구의 사상과 문명에 맞닥뜨려 자신의 오래된 관습과 설화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트롤로프와 마찬가지로 옥스퍼드대학과 커데스던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신화와 민속에 관한 비교 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문외한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고대 신화에 나타난 알, 돌, 금, 물 등의 의미를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이 글에는 그가 게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학습한 흔적도 드러나 있다.[27]

트롤로프는 한국지부가 활동을 재개한 1911년 대한성공회 3대 주교가 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그는 주교라는 중책을 맡은 중에도 한국지부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가 1917년 2월 처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장이 된 후 『회보』 1917년호에 40여 쪽의 「한국 불교 연구 서론」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불교의 기원과 발생, 전파부터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불교에 대한 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교 자체에 대한 글이며,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한 공부를 통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혹자는 그가

선교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글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이상훈 외 지음,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 1, 253~258쪽.

27) Cecel H. N. Hodges, "A Plea for the Investigation of Korean Myths and Folklore,"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5 Part 1,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02, pp. 1~36. 1914, pp. 41~44. 이 글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이상훈 외 지음,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 1, 350~355쪽.

그리스도교의 고위 성직자로서 동양 종교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것을 크게 의식하지도 않았다.[28] 그의 신학을 분석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그가 1900년 강화도에 교회를 지을 당시 한옥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에서 보리수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은 그가 한국인들의 전통 신앙 및 종교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29]

1920년대 말이 되자 트롤로프의 영향 아래 한국 연구에 참여하는 영국국교회 선교사들이 생겨났다. 먼저 1923년 내한한 위티(Clare E. Whitty, 1883~1950) 즉, 메리 클레어(Mary Clare) 수녀가 식물학적 지식과 소묘 실력을 동원하여 「한반도 중부의 야생화」와 「한국의 초본 식물」을 썼다.[30] 트롤로프는 한국지부가 문학, 예술, 역사 외에 과학과 자연사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연구를 장려하였고, 영국 출신의 식물학자 윌슨(Ernest H. Wilson, 1876~1930)에게 검토를 받은 후 『회보』에 게재하였다.[31] 한편 1915년 내한한 사제 헌트(Charles L. Hunt, 1889~1950)는 1929년 6월 한국지부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회화와 화가」를 발표하였다. 그는 서양 문헌 외에도 『槿域書畫徵』(1928)과 『朝鮮書畵家列傳』(1915)를 참고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미술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으나

---

28) 이상훈 외 지음, 같은 책, 357~358쪽.

29) 트롤로프의 성공회 강화성당 건축에 대해서는 이정구, 「유교와 성공회 강화성당 건축」, 『한국양명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07과 강영지・우동선, 「성공회대 도서관 소장 문서를 통해서 본 강화성당의 건립 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6, 대한건축학회, 2016을 참고할 것.

30) 위티는 미국 교단에 소속된 여성 선교사들처럼 대학 교육을 받은 것 같지 않으나, 수녀가 되기 전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소묘 실력 외에도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Rev. Paul G. Mooney, "From Fenloe to Chung'gang-jin," *Newslink : The Magazine of the Church of Ireland United Dioceses of Limerick, Killaloe & Ardfert*, October 2014, pp. 32~33). 식물학적 지식은 대학 교육이 아니라 독학을 통하여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트롤로프가 그녀의 글을 전문가에게 보내 검토를 받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31) A Sister of the C. S. P., "Some Wayside Flowers of Central Korea,"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18,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29, pp. 22~23. 윌슨은 영국 출신의 저명한 식물채집가이다. 1910년대 후반 하버드대학 아널드식물원 식물채집가 신분으로 내한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의 식생」과 「한국의 수목 : 조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나무 50종 속명(俗名)의 예비 목록」을 『회보』에 기고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신만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32] 1930년 11월 트롤로프가 램버스 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고베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사망하자, 그는 고인을 대신하여 더 많이 한국지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교신 서기, 부회장, 회장 등으로 선출되어 거의 매년 임원으로 복무하였고([표3] 참고), 트롤로프의 강연록을 편집하여 「한국의 서적과 작가」와 「한국의 서적 생산 및 인쇄」를 『회보』에 게재하였다.[33] 또한 1923년 6월 설악산을 여행한 사람으로서 「설악산 여행 일기」를 1935년호에 실었는데, 이 글은 외국인들에게 설악산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시대에 작성된 최초의 설악산 기행문이어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34]

[표3] 1930~1939년 한국지부 임원 명단

연도	회장	부회장	서기		사서	회계	고문
			교신	기록			
1930~31	트롤로프	언더우드	헌트	클라크	피셔	홉스	러들로, 화이트, 위트모어
1931~32	언더우드	러들로	헌트	피셔	위트모어	홉스	데이비스, 쿤스, 부츠
1932~33	언더우드	커	쿤스	피셔	위트모어	밀러	데이비스, 로이즈, 부츠
1933~34	쿤스	헌트	클라크	피셔	위트모어	홉스	밀러, 로이즈, 아펜젤러[35]
1934~35	헌트	케이블	클라크	언더우드	위트모어	본윅	아펜젤러, 밀러, 쿤스
1935~36	헌트	피터스	코리	언더우드	위트모어	본윅	아펜젤러, 맥라렌 부인, 빌링스
1936	밀러	헌트	코리	언더우드	클라크	홉스	아펜젤러, 백낙준, 이○○

32) Charles Hunt, "Some Pictures and Painters of Corea,"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19,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30, pp. 1~3.

33) 「한국의 서적과 작가」는 트롤로프가 1929년 11월 6일과 이듬해 2월 26일 한국지부에서 수행한 강연을 헌트가 편집한 것이다. 「한국의 서적 생산 및 인쇄」 역시 이 강연의 일부였으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별도로 수록되었다. 두 글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이상훈 외 지음,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 2, 350~355쪽.

34) 설악산은 백두산과 금강산에 비하면 상당히 늦게 서양인들에게 알려졌다. 백두산에 대해서는 영국 육군 장교 굴드애덤스(Henry E. F. Goold-Adams, 1860~1935)가 1892년 『리포지터리』에 「한국의 몽블랑 여행」을 연재하였고, 그와 함께 백두산을 오른 캐번디쉬(Alfred Cavendish, 1859~1943)도 『한국과 신성한 흰 산(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1894)을 출간하였다. 금강산에 관해서는 1890년대 중엽 영국 정치인 커즌(George N. Curzon, 1859~1925), 북장로교 선교사 밀러(Frederick S. Miller, 1866~1937), 영국 탐험가 비숍(Isabella B. Bishop, 1831~1904) 등이 다루었다. 또한 게일은 1917년 가족과 함께 금강산을 탐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보』 1922년호에 「금강산」을 실었다.

1937	클라크	이○○	코리	언더우드	위트모어	홉스	헌트, 쿤스, 맥라렌 부인
1938	언더우드	케이블	아펜젤러	커	맥라렌 부인	홉스	빌링스, 부츠, 피터스
1939	언더우드	헌트	아펜젤러	빌링스	맥라렌 부인	홉스	케이블, 쿤스, 피터스

이상으로 영국국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살펴보았다. 1890년대 중반 랜디스는 영국국교회 선교사 중 처음으로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연구하고 『리포지터리』와 해외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존스, 헐버트, 게일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 겸 학자'가 되었다. 그는 1898년 사망하는 바람에 한국지부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한국지부 창립에 참여하였고 특히 트롤로프는 연구 인력이 극히 부족하던 때에 「강화도」를 발표하여 연구 역량을 보여 주었다. 그는 1917년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년 회장직을 맡으면서 한국지부의 학술 활동을 이끌었으며, 위티와 헌트는 그의 영향으로 한국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17년부터 10여 년간을 한국지부 역사의 두 번째 단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창립과 활동 재개에 크게 기여한 게일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동시대인이지만 한국 연구에서는 후발 주자였던 트롤로프가 전면에 나섰다. 이 시기 한국지부 연구 활동의 특징은 연구 영역이 과학 분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창립 이래 한국지부의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였다. 그러나 1910년대 말 영국 출신의 저명한 식물채집가 윌슨이 「한국의 식생」과 「한국의 수목」을 발표한 데 이어, 세브란스의전 연구부의 밴버스커크가 기후와 능률의 상관 관계를, 그의 동료 밀스가 압록강의 지류인 동래강 유역의 생태계를 연구하여 결과물을 게재하였다. 회장 트롤로프도 연구 영역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는 한국지부가 문학, 예술, 역사 외에 과학과 자연사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회보』에 명시하였으며, 식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던 동료 위티에게 연구를 의뢰하였다. 「한반도 중부의 야

35)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장녀 앨리스(Alice R. Appenzeller, 1885~1950)를 가리킨다. 이 표의 다른 칸에 기재된 아펜젤러는 모두 그녀의 동생 헨리(Henry D. Appenzeller, 1889~1953)이다. 두 사람 모두 교육 선교에 종사하여 앨리스는 이화여전, 헨리는 배재학교를 담당하였다.

생화」와 「한국의 초본 식물」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공적이었지만, 그녀의 글을 연구발표회에서 대독하고 윌슨에게 검토를 부탁하고 『회보』에 실은 것은 모두 그가 한 일이었다.

4. 전문 연구자로서의 선교사 2세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는 시간은 한국지부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분수령이었다. 먼저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의 저자인 미국인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가 83세의 나이로 1927년 4월 11일 한국지부 회합에 참석하였다.[36] 그는 초대 서울주재영국총영사 애스턴(William G. Aston, 1841~1911), 『한국의 역사(History of Corea)』(1879)의 저자 로스(John Ross, 1842~1915)와 함께 선출된 한국지부의 첫 명예 회원으로, 애스턴이나 로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전현직 선교사들-존스, 헐버트, 게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과도 활발하게 교류한 인물이었다.[37] 이듬해 2월 그의 사망은 한국에 처음으로 학구적 관심을 보였던 1세대의 퇴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한국지부에 좀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1928년 게일의 은퇴와 1930년 트롤로프의 사망이었다. 한국 연구를 주도하던 1세대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사라졌다. 미국에 헐버트가 남아 있었지만 연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회보』 1923년호에 실린 「한국의 국가 고시」는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쓴 글이었다.[38]

---

36) 그리피스가 이 회합에서 낭독한 연설문은 『회보』 1927년호에 실려 있는데,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일본 체류 시절의 경험담, 미국의 일본인 이민 금지 조치에 대한 유감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그는 일부 서양인들처럼 한국과 한국인들을 비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한국의 친구'로 여겼지만, 그가 지지한 것은 한국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의 훌륭한 지배에 의한 한국의 발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미, 「그리피스(1843-1928)의 한국 인식과 동아시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34~247쪽 참고.

37) 위의 글, 142쪽.

38) 1922년 11월 3일 한국지부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헐버트 씨가 옛 한국 정부의 시험에 대하여 쓴 논문이 발견되었다. 벡 씨가 발의하기를 12월 6일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열고

1세대의 퇴장은 2세대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뉴욕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북장로교 선교사 2세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1890~1951)가 자주 회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지부를 이끌었고, 영국국교회에서는 트롤로프의 뒤를 이어 헌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평양에서 태어난 북감리교 선교사 2세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이 『회보』 1929년호에 「1883년 미국을 방문한 한국 사절단」을 기고하였다. 그는 오하이오웨슬리언대학에서 학사,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에 돌아와 이화여전에서 강의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한 목적은 교육이 아니라 자료 수집이었다. 그는 1929년 다시 미국에 가서 UC 버클리 박사 과정에 들어가 「1895년 전 한국과 한미 관계」(1931)로 학위를 받은 뒤 오리건대학 사학과에 임용되었다.[39]

노블은 한국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서양인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언더우드는 1926년 뉴욕대학, 남감리교 선교사 피셔(James E. Fisher, 1886~1989)는 1928년 컬럼비아대학, 북장로교 선교사 클라크(Charles A. Clark, 1878~1961)는 1929년 시카고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았던 것이다.[40] 그러나 이들이 학위를 받은 후 다시 한국에 와서 연희전문이나 평양신학교에서 근무한 것과 달리, 노블은 최초이자 유일의 한국사 전공자로서 미국 학계에 진입하여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였다. 또한 1941년 극동협회(Far Eastern Association)가 기관지 『파 이스턴 쿼털리(The Far Eastern Quarterly)』(『아시아연구저널(The Journal of Asian Studies)』의 전신)를 창간할 때 자문편집위원회 16명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41]

게일 박사가 이 글을 낭독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Meeting of the Counci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14,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23, p. 76.)

39) 노블의 출생과 성장,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혜, 『매티 노블의 선교 생활, 1892-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46~51쪽.

40) 언더우드, 피셔, 클라크 세 사람의 박사학위논문은 모두 저서로 출간되었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Horace Horton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 International Press, 1926; James Ernest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8;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노블과 비슷한 예로 독일인 에카르트(Andreas Eckardt, 1884~1974)가 있다. 그는 뮌헨대학을 졸업한 후 베네딕트수도회 산하 상트오틸리엔수도회에 입회하여 사제가 되고, 1909년 말 내한하여 1928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상트오틸리엔수도회 선교사들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는 달리 사목이 아니라 교육과 같은 간접 선교를 위하여 내한하였다.[42] 그 역시 숭신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등지에서 가르쳤으며, 개신교 교육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한국 연구에도 참여하여 『조선어교제문전(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1923)과 『조선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1929) 등을 발표하였다.

귀국 후 에카르트는 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 노블보다 1년 앞선 1930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한국의 학교 제도」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브라운슈바이크대학의 국제교육연구소를 거쳐 이미륵(李彌勒, 1899~1950)의 후임으로 뮌헨대학 동양학과 교수가 되었다.[43] 그는 한국지부에도 이름을 올렸다. 『회보』 1929년호 회원 목록에 처음으로 '에카르트 신부, 베네딕트수도회, 덕원'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귀국하기 얼마 전 회원이 된 듯하다. 1933년호 회원 목록에는 그의 이름 앞에 별표(*)가 붙었다. 별표는 한국지부 모임에서 글을 발표한 사람에게 붙여 주던 기호였다. 해당 시기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한국에 다시 와서 발표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의 허락 아래 그의 글을 발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930년대 한국지부 구성원들과 『회보』 필진은 예전과 비슷해 보인다. 여전히 영미권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도 있었다. 우선 한국인들의 활동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람은 백

---

41) Earl H. Pritchard,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28-4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ume 22 Issue 4, 1963, pp. 514~515.

42) 조현범, 「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 문화 연구」,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77~178쪽. 상트오틸리엔수도회 선교사들이 수행한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이유재, 「식민지 조선에서 분도회의 지식 생산과 교육」,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43) 이은정・이영석, 「독일 한국학의 성립과 발전」, 『독일어문학』 17-2, 한국독일어문학회, 2009, 279~281쪽. 에카르트와 이미륵, 뮌헨대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미숙,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0쪽.

낙준(白樂濬, 1895~1985)이다. 1927년 한국개신교사 연구로 예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연희전문에 부임한 그는, 1930년호 한국지부 회원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1936년에는 고문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한 『高麗圖經』 기록을 발췌 번역하여 언더우드의 글 「한국의 선박」의 부록으로 실었으며, 『純祖實錄』에서 1818년 영국 해군 장교 홀(Basil Hall, 1788~1844)의 내항을 다룬 기사를 번역 소개하는 등 『회보』에도 참여하였다. 『회보』에 글을 쓴 또 다른 한국인으로 오문환(吳文煥, 1903~1962)이 있다. 숭의여학교 교사였던 그는 제너럴셔먼호 사건 때 죽은 영국 선교사 토머스(Robert J. Thomas, 1840~1866)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다.[44]

1930년대 한국지부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로는 여성들의 활동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창립 이래 여성들의 참여는 점점 증가하였지만, 그들의 참여란 대개 회비를 납부하고 『회보』의 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창립 이래 『회보』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여성은 재일영국인 고든 부인(Elizabeth A. Gordon, 1851~1925)과 영국국교회 선교사 위티뿐이었고, 그나마 위티는 익명으로 기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빅토리아장로교 선교사로서 이화여전에서 역사와 영어를 가르치던 맥라렌 부인이 고문과 사서로 활동하였고, 필진으로는 로이즈 부인(Doris T. Royds, 1883~1974), 곰퍼츠 부인(Elizabeth K. Gompertz, 미상~1989), 부츠 부인(Florence S. Boots, 1896~1976)이 참여하였다.[45] 한국지부 내부에서 특별

44) 백낙준과 오문환이 『회보』에 실은 글들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L. G. Paik (trans.), "From Koryu To Kyung by Soh Keung, Imperial Chinese Envoy to Korea 1124 A. D.,"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23,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34, pp. 90~94; George Paik, "The Korean Record on Captain Basil Hall's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Korea," *Transactions of the RASKB*, Vol. 24,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35, pp. 15~19; M. W. Oh, "The Two Visits of the Rev. R. J. Thomas to Korea," *Transactions of the RASKB*,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Vol. 22, 1933, pp. 95~123.

45) 서울주재영국총영사의 아내 로이즈 부인은 『회보』 1936년호에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역작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1894~1896)의 서론을 번역 게재하였고, 부츠 부인은 음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전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사람으로서 1940년호에 「한국의 악기와 음악」을 발표하였다. 곰퍼츠 부인은 한국지부에서 많은 일을 한 북장로교 선교사 쿤스(Edwin W. Koons, 1880~1947)의 딸이며, 1935년호에 남편과의 공저인 「〈서양의 한국 관련 문헌〉 보론」을 실었다.

한 원인이 있었다기보다는 20세기 초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1930년대 말 노블의 뒤를 잇어 또 다른 선교사 2세가 『회보』에 글을 실었다. 북장로교 선교사의 아들인 맥큔(George M. McCune, 1908~1948)이었다. 그는 1935년 옥시덴털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노블과 마찬가지로 UC 버클리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으며, 1939년호에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한국 이씨 왕조의 연대기」를 게재한 후 「1800~1864년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1941)로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UC 버클리는 노블 이후 10년 만에 또 한 명의 19세기 한국 전공자를 배출하게 되었고, 맥큔은 수년간 옥시덴털대학에 재직하다가 1946년 UC 버클리로 옮겨 1948년 부교수가 되었다.

선교사 2세가 전문 연구자로 성장한 것은 한국에서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맥큔과 함께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발표한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는 도쿄에서 북장로교 교육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오벌린대학에서 학사, 하버드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UC 버클리 박사과정생이던 맥큔과 함께 맥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만들었다.[46] 헤이안 시대 일본 승려의 중국 기행문인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연구하여 1939년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 극동언어학과에 40년간 재직하면서 일본연구소를 창설하는 등 미국 학계에 일본학을 안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회보』 1940년호에 「14세기 말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발표한 콜럼비아대학의 굿리치(L. Carrington Goodrich, 1894~1986)도 선교사 2세였다. 그는 베이징 외곽의 퉁저우에서 미국해외선교위원회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1917년 윌리엄스대학을 졸업하였고, 콜럼비아대학에서 중국사를 공부하여 1927년 석사, 1934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콜럼비아대학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956~1957년 아시아협회(Association for Asian

46) 실질적으로 표기법을 고안한 것은 맥큔이었다. 라이샤워는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중국 및 일본의 학자들과 알고 지냈으므로,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표기법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김서연, 『조지 맥아피 맥큔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사연구』 181, 한국사연구회, 2018, 253~254쪽).

Studies)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明代名人傳(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1976)을 집필하였다.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자들의 글을 실은 것 외에도, 1930년대 한국지부는 서구 학술 단체들과 정식으로 학술지를 주고받으면서 『회보』 뒷부분에 학술지 목록을 기입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지부와 학술지를 교환한 단체들은 왕립아시아학회 본부와 4개 지부(실론, 봄베이, 일본, 북중국), 프랑스의 아시아학회, 영국의 왕립지리학회, 스웨덴의 지질학연구소,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양연구소, 이탈리아의 예수회기록보관소, 그리고 미국의 스미소니언연구소, 미국동양학회, 미국철학학회, 미국지리학회 등이었다.[47] 그러나 『회보』가 단지 이 기관들로만 간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초 200명을 돌파한 한국지부 회원들이 『회보』를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호 회원 목록을 기준으로 211명 중 대략 3분의 2는 한국에 있었지만,[48] 나머지는 중국, 일본, 싱가폴, 필리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 다양하게 퍼져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지부 종신 회원이었던 웜볼드(Katherine C. Wambold, 1866~1948)는 무려 예루살렘에 소재한 미국동양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49]

한국지부의 학술 활동은 전문 연구자들의 글을 싣고 서구 학술 단체들과 기관지를 교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1939년 말 1940년호를 발행한 후 한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1940년 10월 일본이 독일 및 이탈리아와 연합을 형성하고 영국 및 미국과 대척점에 서면서,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본

---

47) "List of Exchanges," *Transactions of RASKB*, Vol. 25, Seoul, Korea: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36, p. 128.

48) 한국지부 회원 규모는 1900년대 초 74명(1903년호), 1910년대 중반 113명(1916년호), 1920년대 중반 192명(1924년호)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193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면서 200명(1933년호)을 넘어섰다. 명예 회원과 일반 회원이 있었으며 1920년대 초에 종신 회원이 신설되었다. 회원들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한국지부가 지속적으로 『회보』를 간행할 수 있도록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회보』에 기고하지는 않더라도 연구발표회에서 글을 발표하는 등 학술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49) 웜볼드는 1896년 내한하여 1936년까지 40년간 활동한 북장로교 선교사이다. 미국동양연구소는 보스턴대학을 거쳐 현재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국해외연구협회(American Society of Overseas Research)의 전신이다.

국의 권고에 따라 혹은 일제에 의한 추방 형식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한국에는 북장로교 24명, 남장로교 4명, 빅토리아장로교 5명, 캐나다장로교 4명 등 37명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들 중 북장로교 소속 22명은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제에 의하여 억류되었다. 한국지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언더우드, 쿤스, 커(William C. Kerr, 1883~1976)는 감리교신학교 부지에 수용되었다.[50]

이상의 검토에 따라 필자는 한국지부 역사의 세 번째 단계를 1929년부터 1940년까지로 보고자 한다. 1세대 한국학 연구자였던 게일의 은퇴, 역시 1세대였던 트롤로프의 사망에 이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시기로 볼 수 있겠다. 노블과 맥큔은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사 2세로서 한국사, 특히 한국의 대외 관계를 전공하여 미국 학계에 진입하였다면, 에카르트는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노블과 비슷한 시기에 독일 학계에 자리를 잡아 수십 년간 교육과 연구에 힘썼다. 요컨대 1930년대 초 서구의 고등 교육과 학문 연구 체제에 한국을 등장시킨 연구자들의 뒤에는 한국지부가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1900년부터 1940년까지 한국지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첫째, 한국지부는 『리포지터리』에 다수의 글을 기고하면서 초보적인 연구자로 성장한 '선교사 겸 학자' 4인 중 3인인 존스, 헐버트, 게일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1880년대 후반 평신도 자격으로 내한한 이들은 교육 사업과 사전 편찬 등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리포지터리』의 발행이 중단되자 본격적인 학술 단체인 한국지부를 조직하기 위하여 의기투합하였다. 한국지부는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창립 몇 년 만에 크게 위축되었지만,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게일의 주도로 1911년 활동

50) 안종철,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179~189쪽.

을 재개하고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1900년부터 1916년까지를 한국지부 역사의 첫 번째 단계로 구분하였다.

둘째, 미국 교단 선교사들이 다수이기는 했지만 영국국교회 선교사들도 한국지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존스, 헐버트, 게일과 함께 『리포지터리』의 주요 필진이었던 랜디스의 영향을 받은 트롤로프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한국지부 창립 초창기에 『회보』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1917년부터 거의 매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위티와 헌트가 한국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그가 회장이 되면서 게일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1928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학술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1917년부터 1928년까지를 한국지부 역사의 두 번째 단계로 보았다.

셋째, 게일의 은퇴와 트롤로프의 사망 후 선교사 2세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가 한국지부를 이끌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한국을 친근하게 여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학계에서 한국을 다루는 전문 연구자가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리건대학의 노블, 옥시덴탈대학을 거쳐 UC 버클리에 자리를 잡은 맥큔이 대표적인데,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 2세들도 이와 같은 삶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선교사 2세는 아니었지만 천주교 선교사 에카르트도 노블과 비슷한 시기에 학위를 받고 독일 한국학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하여 1929년부터 1940년까지를 한국지부 역사의 세 번째 단계 즉, 한국지부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전문 연구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로 설정하였다.

한국지부는 해방 직후 다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시기는 전체 역사의 3분의 1 정도이며, 이 시기 한국지부의 의의는 한국학이 정식 학문이 아니던 때 학문적으로 한국을 연구한 세계 유일의 기관이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해방 후 서구 한국학의 무대는 한국지부에서 다른 기관들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김서연, 「조지 맥아피 맥큔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사연구』 181, 한국사연구회, 2018.
김수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회지 『Transaction』을 통해 본 서양인의 한국 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나일성, 「알비온에서 온 두 과학자 : 베커와 루퍼스의 교육과 사상」, 『동방학지』 46-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류대영, 「연희전문, 세브란스의전 관련 선교사들의 한국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안종철,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 1900 : 1924년을 중심으로」, 『한국학』 4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이상훈 외 지음,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전2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이영미, 「그리피스(1843－1928)의 한국 인식과 동아시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1.
이유재, 「식민지 조선에서 분도회의 지식 생산과 교육」,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이은정 · 이영석, 「독일 한국학의 성립과 발전」, 『독일어문학』 17－2, 한국독일어문학회, 2009.
조선혜, 『매티 노블의 선교 생활, 1892-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조현범, 「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 문화 연구」,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한철호, 「헐버트의 만국평화회의 활동과 한미관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홍미숙,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Earl H. Pritchard,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28-48,"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ume 22 Issue 4, 1963.
Rev. Paul G. Mooney, "From Fenloe to Chung'gang-jin," *Newslink : The Magazine of the Church of Ireland United Dioceses of Limerick, Killaloe & Ardfert*, October 2014.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and Westerners' Study of Korea between 1900 and 1940

Lee Yeong-Mi*

On June 16th, 1900, seventeen Western people gathered at the reading room, Seoul Union, and founded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Korea Branch). It was established as a branch of the British academic association which received its charter in 1824, but its founding fathers were residents in Korea, rather than those in London. They held regular meetings for research presentation and published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ransactions). They barely received intervention of the headquarters. It settled in the early 1910s after some difficulty, and had been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for about thirty years until the Japanese forced American missionaries to leave Korea. It was reestablished by a few American and British people on December 18th, 1947. Last year saw its 120th year.

This article reviews the early history of the Korea Branch between 1900 and 1940, and divides it into three stages (1900-1916, 1917-1928 and 1929-1940). First, George H. Jones (1867-1919), Homer B. Hulbert (1863-1949) and James S. Gale (1863-1937) had a major role in its foundation. Especially, Gale contributed to its settlement after Jones and Hulbert left Korea.

Secondly, some Anglican missionaries had a real enthusiasm for Korean studies. Under the influence Eli B. Landis (1865-1898), missionary and scholar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like Jones, Hulbert and Gale, Mark N. Trollope (1862-1930) published his research to *Transactions* in the initial period. He had been elected as president almost every year since 1917, and helped his colleagues study Korea.

Finally, in the end of 1920s, second generation of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started leading the Korea Branch. Among them, Harold J. Noble (1903-1953) and George M. McCune (1908-1948) got a doctor's degree in Korean studies and entered the world of academia in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same time, Andreas Eckardt (1883-1974), Catholic missionary, got a doctor's degree as well and became a pioneer in Korean studies in Germany.

Key words :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George H. Jones, Homer B. Hulbert, James S. Gale, Mark N. Trollope, Eli B. Landis, Harold J. Noble, George M. McCune, Andreas Eckardt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22일